

APEC 통신장관회의의 정보보호 논의 동향

정보보호 위한 국제 협력 집중조명 되다

지난 4월 23~25일 3일간 태국 정부의 주최로 제7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The 7th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TELMIN 7)가 방콕에서 개최됐다. 지난 1994년 APEC 정상회의 당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설립된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는 1995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2~3년 주기로 총 6차례 회의를 진행, 아·태지역 통신분야 논의의 최고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제7차 APEC 장관회의는 '디지털 번영: 도전을 성취로(Digital Prosperity: Turning Challenges into Achievement)'라는 주제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발전 및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APEC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7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의 세션별 주요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특히 정보보호 분야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중점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석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기획과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번영을 위한 ICT 역량강화', '보편적 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전 및 전략',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유연한 규제 구조', '디지털 번영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조성', '사이버 보안활동과 대외협력 강화', '미래를 향한 협력' 등을 주제로 총 6개의 세션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며, 무엇보다 안전한 ICT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논의가 2개의 세션에 걸쳐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관심은 디지털 번영을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와 정보 네트워크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APEC 회원국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 강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내 발표자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으며, 다섯번째 세션에서 KISA 황중연 원장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본격 도래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APEC 회원국 간의 사이버 보안 국제훈련을 소개했다.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SESSION 1

미래 번영을 위한 ICT 역량 강화

호주 Stephen Conroy 광대역 통신디지털 경제부장관

호주 정부가 2005년 수립, 발표한 광대역 네트워크 강화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정보보호 이니셔티브 개요를 소개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스팸 및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APEC TEL 협력강화 제안

브루나이 Pehin Abu Bakar Apong 통신부 장관

브루나이 IT 역량 강화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ICT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혁신과 기업이 정신발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IT 국민성 개발 목표 제시

중국 Xi Guohua 공업신식화부 차관

중국 농촌 지역의 ICT 역량 강화 활동과 관련, 사람 중심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함으로써 ICT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 2010년까지 보편적 서비스 달성에 우선순위를 둔 5개년 국가정보화 계획 발표

일본 Tsutomu Sato 총무성 차관

아·태 정보사회(Asia Pacific Information Society: APIS) 비전 달성을 위해 국제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U-Japan 정책추진을 통해 모든 일본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회 구축계획 발표

미국 David Gross 국무부 정보통신대사

인터넷은 의사표현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로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유가 요청되며, 또 디지털 번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최상의 인적자원과 장비를 개발하고 시스템 접근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한 APEC의 지속적 역할 강조

SESSION 2

보편적 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전과 전략

대만 Deui Tsai 교통통신부 장관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편적 목표설정과 농촌 46개 지역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보편화 및 2002년에 시작된 e-Taiwan 전략의 성공사례 소개

뉴질랜드 David Smol 경제개발부 차관

뉴질랜드의 3개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소개하고 기술 소외계층 배려 등을 포함한 첨단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정책 소개

파푸아뉴기니아 Patrick Tammur 정보통신부 장관

IOCC 및 PANGTEL 등의 규제기구를 소개하고, 보편적 의무제도와 관련해 농촌 지역 통신 네트워크 제공 목표 설명

태국 Sethaporn Cusripituck 통신위원회 위원장

태국의 농촌지역 정보화 낙후 현실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태국정부가 정비한 브로드밴드 및 통신 서비스 관련 법과 통신법 등의 보편적 의무 법안을 소개

미국 Meredith Baker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

미국의 보편적 의무 전략이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소개하고, 기술 중립적 정책을 통한 브로드밴드 구축 및 서비스 확대방향 발표

베트남 Le Nam Thang 정보통신부 차관

정보격차 해소활동으로 우편통신 지점 설치, 도서관, 신문, 우편, 전화, 인터넷 서비스가 3,000여개의 농촌 지역에 보급되도록 하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이니셔티브를 소개

SESSION 3

변화하는 시장과 유연한 규제 구조

한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융합 시대에 발맞춰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이 공익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정보사회 기반 구축,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진흥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등에 있다고 밝히고, 세부 추진과제로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 마련, 경쟁촉진, IPTV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TV 확산, 보편적 서비스 등을 제시했으며, 2008년 하반기 서울에서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대비한 APEC 내 공동 논의의 장 마련 계획 소개

캐나다 Kevin J. Lindsey 산업부 차관보

IT 환경에 발맞춘 정책·규제 방향 소개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서의 IT 역할, 소비자 보호, 시장 경쟁 유지를 중요 사안으로 언급

홍콩 Frederick MA Si-hang 공상과기국장

홍콩 정부가 시장 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통신규제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탈규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

싱가포르의 Lee Boon Yang 정보통신예술부 장관

사용자 제작 콘텐츠 환경과 NGN 보급 이니셔티브를 새로운 환경 변화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하면서 회원국 간 정책 모범 사례와 경험 공유 제안

SESSION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조성

캐나다 Kevin J. Lindsey 산업부 차관보

사용자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속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침해에 따른 신고제도 및 보고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소개

디지털 번영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Kevin J. Lindsey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각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성,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업, 조직, 소비자와 개인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최근 고도화된 보안 위협과 취약성이 증대되면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보안전책과 관행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APEC 보안 및 번영 운영 그룹'의 데이터 보안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운영그룹을 통해 'APEC 사이버 보안 전략'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고취 및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미 발생한 경우 신고제도가 있어야 정부, 기업과 일반 시민의 사고대응이 가능하며, 캐나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유출사고를 일반 국민과 개인정보보호감독관(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에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정보보호 관행을 개선시킬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이 입는 피해를 완화하는 것과 현행 보안 관행과 정보유출사고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과 관행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 보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APEC과 OECD간의 약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협력과 이 협력체계에 다른 국제기구도 포함시키는 계획을 지지한다.

일본 Masaaki Kimura 경제무역산업성 차관보

사이버와 현실 공간 간의 공조, 기업 정보보호, 일본의 정보보안 경험과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ISMS) 소개

APEC 지역의 번영을 위한 안전한 IT 환경 실현 / Masaaki Kimura

일본은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을 발족해 1990년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6년에는 인터넷 감시, 해외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공격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02년에는 국제 기준에 맞춰 기업 내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개발, ISMS 인증을 시작했다. 이미 세계 전역에서 ISMS 인증을 받은 단체의 50%에 해당하는 2,500여개 단체가 일본에서 인증을 받았다. 기업의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APEC 전역에서 정보보안 관리 노하우 보급은 꼭 필요하다.

한편, 40개 질문문항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에 대한 자가 점검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민간 기업 침해사고 대응팀간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해 관련 협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가 CERT 구축지원을 위해 전문기를 파견하고 있다.

SESSION 5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한국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사이버 침해 사고 유형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이버 범죄와 법적 장치의 괴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비 APEC 회원국 간 진행 중인 훈련 활동 소개

정보보호 분야 도전과제와 국제협력 / 황중연

과거에는 디스켓 등 저장 매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웹 사이트 해킹사고 등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바이러스 전파, 악성 봇을 이용한 통신망 공격 등이 이뤄지고 해킹을 통한 금전적 목적의 개인정보 탈취, 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이 출현하는 등 정보보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국내 기업의 2005년도 연간 누적피해액은 약 4,500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피를 위한 연간 지불의사 금액도 개인은 47,000원,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사회의 본격 도래로 바이오 정보, 위치/영상정보 침해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월·바이러스, 스팸 메일, 개인정보 유출, CCTV, 위치정보 악용 등이 정보보호의 주요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및 역기능이 빠르게 진보하는 반면, 법제논의는 사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통신 서비스 도입 시에는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적절한 보안수준을 유지토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낮은 수준의 보안은 서비스 성능 및 사용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관리비용을 증대시키기기 때문으로, 향후의 정보보호 정책은 기존의 대응 중심 정책보다는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한편, APEC 회원국가와의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12개국이 참가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사이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협력 훈련 및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Muhammad 통신정보부 장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 제도를 소개하고 APEC TEL 내 사업자, IT 전문가, 정부관료, 기타 이해 관계자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제안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보안 / Muhamamad

인터넷은 통신 네트워크에 비견할 수 있는 세계적 인프라가 됐으며 사용자 중심의 성격을 띠고 그 어느 때보다 열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사용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점점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며, 인터넷은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핵심 요소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는 최근 수년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이버 모순'이 인도네시아의 도전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인터넷 용량 증가와 동시에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관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ID-SIRTI(인도네시아 인터넷 인프라 보안사고대응팀)라는 CERT/CSIRT를 구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정보와 거래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으로서 전자정보 및 거래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CERT/CSIRT(ID-SIRTI)에 대한 정보를 모든 이용자에게 전달해 이해관계자와 이용자와의 의사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APEC TEL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IT 전문가, 정부 관료, 기타 이해관계자간 협력,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며, 협력의 범위는 인터넷 범죄, 악용사례, 사고 예방책,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최소화, 전국적인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사용자 인식 증진을 위한 공공 교육, 기본적인 제도 및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말레이시아 Mohd Padzil Hashim 에너지자원통신부 차관

사이버 보안 국제 협력 활동으로 2006년 세계정보기술 회의에서 제안된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다자 파트너십(IMPACT) 소개

사이버 보안 활동 대외협력 강화 / Mohd Padzil Hashim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으로는 기술 및 네트워크의 진화, 디지털 융합, 규모의 효과, 익명성, 세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사이버 세계의 낮은 진입장벽과 정교해진 사이버 범죄, 현행 법체계의 미비,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적합한 대응 조직의 부재 등으로 사이버 위협의 속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또 세계화되고 있다. 때문에 TELMIN 6 행동 프로그램 중 Part 3(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보안 강화 및 반영 도모)에 입각해 APEC TEL은 다른 유관 기관과 함께 보안 문제에 대한 대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정보보호 분야의 대외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아젠다(GCA) 개발을 위한 ITU 고위급 전문가 그룹(HLEG) 회원국 활동을 비롯해 아·태지역 침해사고대응협의회(APCERT) 의장국, ASEAN 통신 규제자 협의회 네트워크 보안 실무그룹 의장국, APEC TEL의 보안 및 반영 운영 그룹(SPSG) 전임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세계정보기술대회(WCIT)에서 말레이시아 국무총리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제적 다자 파트너십(International Multilateral Partnership Against Cyber Terrorism, IMPACT)'을 발표한 바 있는데, IMPACT는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민관협력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기관으로 IMPACT 본부가 2008년 11월에 개관될 예정이다. IMPACT의 국제자문위원회는 Vinton Cerf 인터넷의 창시자이자 구글 부사장, Howard Schmidt 전 백악관 사이버 보안 자문, Hamadoun Toure ITU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PACT 주요활동에는 글로벌 대응, 정책·규제체계 및 국제협력,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보안 인증 및 R&D 등이 포함돼 있다.

태국 Mun Patanotai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ICT 학습 센터 공공장소 설치·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보급과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와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역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 Mun Patanotai

2008년 4월 기준으로 태국의 인터넷은 국제 대역폭 29,184 Gbps, 국내 대역폭 177,94 Gbps에 이르고 있으며, TH 도메인 수 28,099개, 태국어 .TH 도메인 수가 6,983개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만도 1천341만6천명에 이른다. 태국의 IT 관련 법으로는 전자거래 및 전자서명법, 국가 정보 인프라법, 정보보호법, 컴퓨터 범죄법, 전자 자금 이체법 등이 있어 마련돼 있으며, IT 발전을 위한 태국 정부는 지역 사회에 기본적인 IT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2001년 제정된 전자 거래법에 의거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한편, 2007년 7월부터는 컴퓨터 관련 범죄법이 시행되고 있다. APEC 국가는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사이버 범죄자들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하고 서로의 경험을 배우며, 모범 사례를 공유해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국 Deborah Taylor Tate 연방통신위원회 위원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퇴치에 산업계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APEC 내에서도 이 같은 논의의 출현 기대

어린이를 위한 사이버 안전 향상 / Deborah Taylor Tate

연방통신위원회의 현안은 2009년 2월 DTV 전환, 700 MHz 황금주파수 경매(\$190억), 무선통신을 통한 긴급경보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개혁(\$70억 규모 고비용지원금), 지방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구축 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 촉진 등으로 요약된다.

인터넷의 혜택은 무한하며 위험과 도전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Privacy), 불법복제(Piracy)와 악탈자(Predator) 등 3P가 문제되고 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사적인 정보, 특히 재정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문제이며 정보유출 기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불법복제는 음반, 영화와 비디오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이 대상이며 불법복제로 인해 미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약 \$200억을 상회하고 있으며, 어린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소재 음란물 및 정보 악탈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일례로 한 통계에 따르면, 10~17세 어린이 5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성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의 절반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다. 또 청소년의 30%는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에서 채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어린이 사용자의 77%는 온라인 프로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아동의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국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물 퇴치방안으로 카드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간 연합체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사이버 안전향상을 위해 사법부, FBI 등이 사법집행을 강화하고 가족 온라인 안전협의회(FOSI)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AOL, AT&T, Verizon, Microsoft, CISCO, 미국 케이블 산업계(Clicksafe)에서도 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 산하 Office of Internet Safety and Public Awareness를 설립해 인터넷 안전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폐회-미래를 향하여

한편, 마지막 세션에서는 APEC 사무국장 Juan Carlos Capuney, ASEAN 의장 Surim Pitsuwan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회원국의 최종 의견이 반영된 방콕 선언문(Bangkok Declaration)을 채택했다.

TELMIN 7의 의장인 태국 정보통신장관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정보통신장관회의 전체회의의 결과를 요약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ICT 역량 강화는 네트워크 확대와 초고속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대 설정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둘째, 유연한 정책·규제 구조 마련을 위해 디지털 융합에 대한 공동 연구 촉진 장려, 정책 틀 및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 공유가 필요하며, ▶셋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ICT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 정책과 관행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 정보경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규제적 제도 마련을 위해 회원국간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 세상 조성을 위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금번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은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이 선행되어야 디지털 번영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보호 규범을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APEC은 전세계 인구 및 GDP의 60%, 인터넷 인구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때문에 OECD, ITU 등과 함께 정보사회 협력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로서 APEC TEL(정보통신 실무그룹) 차원에서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증가하는 역기능을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심층적인 협의를 통해 공



동 대응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 APEC TEL 내에서 높은 IT 위상을 이용해 정보보호 분야의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마련 및 기술개발 등에서 한국적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리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의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 스팸 대응,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이버 테러 예방 등의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안전에 대한 APEC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양자 및 다자간 차원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S**

APEC TELMIN 7 방콕 선언문 주요내용

주요 내용(총 29개 조항)

- 보편적 서비스 확대 보급을 위해 2015년을 달성 완료시기로 설정해, 공동체의 목표 달성 노력 촉구
- 통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정보통신 기기의 상호인증 협정(MRA)의 공동이행 노력 강조
-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소비자 및 기업을 보호하는 보안대책 강조
 - ITU, ASEAN, OECD 등 국제 기구와의 사이버 보안 협력활동 확대
- 미래사회의 번영을 위한 ICT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아·태 정보사회(APIS, 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로의 발전을 강조
- APEC 역내 공동번영 및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APEC TEL과 APEC 내 타 포럼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추진

방콕 선언 중 정보보호 분야 조항(제14~23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14조 ICT 환경에서 소비자 및 기업은 악성 소프트웨어나 사기 행각 등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및 기업에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여 온라인상의 보안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인 및 기업 정보의 보호 및 보안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 유지 및 증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15조 본 항목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는 온라인 위협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PEC 역내 소비자 및 기업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술을 제공, 온라인 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안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조 소비자 및 기업의 온라인 신뢰는 전자 상거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다. 우리는 TEL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나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소비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17조 우리는 또한 필수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전자 정보 시스템보호와 관련된 정보, 경험 및 우수 사례를 계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8조 ICT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사이버 보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조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이며 범세계적인 문제점으로 정부, 법집행 기관, 관련 업계, 기업 및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다자간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 개발 및 추진은 물론이고 APEC과 여타의 다른 기구들이 협력하여 필수 인프라와 서비스, 전자 정보 시스템 등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한다.

20조 대외 활동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CSIRT 전문가, 법 집행 담당자, 법률 입안자 등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업무가 효율화되도록 장려한다. 또한 ICT 기술과 보안에 관해 민간 협력을 증진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조 TEL의 대외 활동 및 역량 강화 활동을 높이 산다. TEL의 해당 활동은 CERT와 CSIRT 및 법 집행 담당자, 법률 입안자 등의 업무를 촉진시켰고 악의적인 온라인 상의 활동의 근절 및 사이버 보안을 증진하는 데 일조했다.

22조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여 보안 관련 접근법을 개발한 점을 높이 사는 바이다.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APEC-OECD의 공동 보고서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 보안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3조 각국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필수 인프라와 서비스의 전자 정보 시스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APEC 회원국들에게 사이버 공격시 대응 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 및 연습 과정을 실행할 것을 장려한다.